

너를

84

2019 상반기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낙태죄 헌법불합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 10 권력에 대해 말하기_안OO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14 미투(#Me Too)에의 응답, 강간죄를 개정하라!

18 원대!상담소

20 열림터 다이어리

- 20 자기방어훈련 후기_저항과 거절

23 생존자의 목소리

- 23 젤리의 편지
- 27 지금의 '가영'
- 30 일상회복프로젝트_ '나'에게 여행을 선물했어요
- 33 기억 그 이후

38 성문화읽기

- 38 소모임 메카 5기_당신의 단톡방은 몇몇한가요?
- 43 칼럼_나는 '여자는 동물과 다름 없다'라는 말이 불편했었다

47 시끌시끌 상담소

- 47 불편한 후원
- 50 2019 상근활동가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 56 인턴 활동 후기_ 마이라의 편지

60 아낌없이 주는 나무

63 훈훈한 기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앞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발족한 지 2년,

“3년 내로 낙태죄 폐지하자” 막연했던 다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과 앞으로 이어갈 활동에 대한 의지를

회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2019년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형법 제정 66년 만에,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드디어 ‘낙태죄’가 폐지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라고 외치고 싸워온 성과입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운동이 시작된 배경

‘낙태죄’는 원래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국가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절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암암리에 임신중지를 권장하고 정부 주도하에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국가가 ‘저출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낙태죄’는 갑자기 여성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반대세력이 나타나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2010년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가짜 유산유도제가 유통되고 원정 임신중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술 병원을 소개해주겠다는 가짜 브로커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을 협박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형법상 ‘낙태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합헌 결정을 선고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던 도중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에 함께 하며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예외적 사유 안에서의 지원 기준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피해자 및 여성 일반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인공유산의 합법화 없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과 관련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거리로 뛰쳐

나와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라고 외치며 <검은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폴란드에서 2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한 임신중지금지법안 반대 집회 <BLACK PROTEST>의 한국 버전이었습니다. 이때 검은 시위를 주최했던 여성단체들이 2017년도에 다시 모여서 구성한 연대체가 바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페’)입니다. 이와 별개로, 익명의 여성들은 <BWAVE>를 구성하여 2019년 3월까지 총 19차에 걸친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외치다

모낙페는 2017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발족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연대체 구성을 논의하는 초동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저는 입사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 활동가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낙태죄 폐지하자!”라고 결의할 때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료활동가들이 ‘앞으로 3년’의 활동 전망을 공유할 때는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으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초동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국가가 생명을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해 온 역사, 모든 여성/사람의 평등권, 성과 재생산 권리, 의료 서비스 접근권,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문제 등에 대해 담론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라는 슬로건은 나이, 지역, 국적,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경제 상황, 질병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의 삶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을 담아 결정되었습니다.

활동 초기에 모낙페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당사자의 경험을 사회에 알리

고자 노력했습니다. 퍼포먼스, 기자회견, 대중집회 등을 통해 중년 여성, 장애 여성, 청소년, 기혼/비혼 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HIV 감염인, 성판매 여성 등 각각 다른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의 발언을 직접 듣거나 대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자유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포궁이 있고 임신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당사자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담론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 안에서만 논의되거나 이성애중심적인 서사로만 상상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실감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경험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모두가 싸워서 얻어낸 결과

2017년 가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35,37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법제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문제점이 있고, 남성과 사회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35,372명의 구체적인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검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8년 5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모낙페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각종 기자회견, 단위별 릴레이 의견서 제출, 시민 서명운동 등을 지속하였고,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269명이 만드는 형법 269조 삭제 퍼포먼스>,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활동가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고펜츠를 국내에 초청하여 대중강연회, 국회토론회 등을 열고,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에 동참하는 등 전 세계의 재생산권 운동과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마지막 압력을 가하

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론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예상되는 선고 결과별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선고 이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019년 3월 30일에 진행되었던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낙인과 처벌 없는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요구를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된 2019년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고 직전까지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학생, 종교계, 청소년, 성과재생산포럼, 교수연구자, 장애계, 진보정당, 의료계 등의 기자회견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모낙페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선고 결과에 대한 모낙페의 입장 발표와 변호인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가 열렸습니다. 기쁨과 희망, 성취감으로 환한 웃음을 띤 참여자 1,000여 명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선고 다음 날인 2019년 4월 1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낙페는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여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수나 사유 제한을 두어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로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의 과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한정된 구도 안에서 논의를 그쳤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제

시한 입법 한계와 입법 방향을 참고하되, 결정문에서 논의되지 않은 더 넓고 다양한 층위의 담론(건강권, 평등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령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담 의무, 숙려기간 등을 제도화거나 의료인의 ‘신념’에 의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임신중지를 하기 위한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당사자의 권리는 사실상 제한될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에게 피임 교육을 제공하는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낙페는 국회와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입법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8일에는 열린 토론회 <낙태죄 폐지, 2 ROUND>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며 보건의료, 노동, 성교육, 가족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만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순간, 앞과 오매

권력에 대해 말하기

안OO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김혜정_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9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를 통해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심을 앞둔 지금, 안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혜정(오매) 활동가가 위력 성폭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안OO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8년 3월 4일이었습니다. 세계여성날 여성대회를 마친 저녁, 긴급하게 모인 세 명의 활동가들은 평소 연대하던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체마다 이 일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논의하게 되었던 다음 날 3월 5일, 피해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고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던 중, 신변이 우려스럽다면 방송을 통해 고발을 공고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며칠 고민하던 피해자가 다급하게 나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피해 이후 출근하지 못한지 며칠, 관련 내용이 뉴스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는지, 그날 오후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수십통 걸려

왔습니다. 전 직장인 공공기관 상사까지도요. 목살, 은폐, 회유와 그 이외의 상상을 수없이 해오던 피해자는 그 날 생방송이 아니라면 신고는 시도할 수 없다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방송 출연이나 얼굴, 실명 노출 말하기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며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로써 아주 불안한 환경이었는데, 그 불안 너머에 더 큰 불안이 있는 상황. 첫 번째 만나게 된 권력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날로 꾸러지게 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서, 변호사사무실, 단체 사무실 어디에든 진을 친 언론을 피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를 대표로 건 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논의체계가 구성되어 있던 전성협의 빠른 의사결정과 움직임이 결정적이었지요. 변호사 선임과 고소장 제출부터 시작하여 1심 재판을 받기까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투운동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력’의 보유자, 대법원 판례의 문구대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 ‘우월적 지위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권력은 어떤 개인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문법과 방식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그 자세한 장면을 알아야 하고,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과 어법을 알아야 합니다. ‘군대’라는 상위 개념에서 3군, 사단, 해군, 함선, 격실이라는 하위 개념과 장면들로 내려가며 그 현장과 맥락을 파악해가듯, 예술 영역에서, 교육기관에서, 정치 분야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 분야는 다른 분야와 좀 비슷하게도 혹은 다르게도 ‘팬덤’으로 정치를 치환하거나 대체하는 양상을 지녀왔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느냐, 어떤 정치인이 ‘인기’가 많느냐로 대중과 정치가 만나고, 의제, 각론, 주장, 토론을 좋아하는 (유사)정치인에게 위임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안OO 전 충남도지사이자 대권주자였던 사람 역시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었는데 그에게 ‘인권’이나 심지어 ‘페미니즘’ 가치도 위임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권을 말했던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라는 반

응에는 인권을 선언할 수 있는 것도 권력이 생산할 수 있는 여러 모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반응은 빠르고 많고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권력자가 거짓말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은 피해자에 대한 반응만큼 빠르거나 많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팩트주의’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팩트’가 내용의 사실관계 이전에 화자의 위치에 대한 평가일 수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법이 보호하고 있으나 성인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니 왜 행사하지 않았는지/못했는지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등을 선고의 골조로 삼았습니다. 제재되지 않은 권력행사, 갑질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때로는 ‘극혐’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따져 묻는 질문은 없고, 방법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을 넘어서 결국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1차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2차적으로는 피해자/신고인에게 전가하는 그 경로를 제시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1심 선고 당일 500명의 여성들이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날 밤 ‘가해자는 감옥으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며칠 뒤 8월 18일 서대문 역사박물관 앞에서는 미투시민행동의 긴급집회로 2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안OO은 유죄다’라고 외치며 집회와 행진을 하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는 6명의 변호사들이 더 참여하여 9명의 피해자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가 확대되어 수많은 여성, 인권사회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2심 첫 기자회견의 제목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 지켜본다 바꾼다”였습니다. ‘보통의 김지은들’은 이 문제를 노동현장에서의 불안정성, 나 아래의 사람을 동등한 시민에서 제외하는 위계구조, 자의적인 욕망을 실행하고 불이익과 연결시키는 남성 중심의 일터 성애화 문제로 보았습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력

에 대한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상황과 맥락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심 이후 ‘그 권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륜설, 꽃뱀담론, 피해자다움 등은 보수적인 문화적 담론이면서 반사회적인 담론이기도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한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을 현실과 괴리시키고, 침묵하던 피해자들의 용기와 고발을 의심으로 몰아넣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절차를 불신임하자고 독려합니다. 미투운동을 권력이 아닌 ‘성스캔들’ 문제로, 구조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담론이 더 익숙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개인이 회피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을 사회적 의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대법원 선고일은 더 늦어질 듯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는 결과라는 무게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법원의 판단 결과에 전적으로 기대게 되는 상황, 위력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값없는 큰 불안을 안기는 사회가 왜 문제인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묻기 전에 권력자에게 더 먼저, 더 촘촘히 질문하는 사회, 너무 요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성큼 향해가는 중일 것입니다. ☯

미투(#Me Too)에의 응답, 강간죄를 개정하라!

이미경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난 3월 21일 본 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현행 형법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연대회의의 사무국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년동안 추진되었던 〈여성인권법연대회의〉에 이어
10여년 만에 전국 208개 단체와 함께 다시 시작된 연대활동의 취지와 내용,
진행계획 등을 전합니다.

“나도 그래(Me Too)”운동은 성폭력이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며, 성폭력과 맞서는 싸움에 함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자 서로에게 보내는 힘과 용기,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우리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이고 실천이며 감동적인 연대입니다. 그럼에도 #미투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은 바뀌었는가? 특히 형사사법절차를 선택한 경우 법에 의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나아가, 법은 객관적이고 정의로운가?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보면, 형법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3월 21일 첫 회의

건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강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동의 여부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7년 일반권고 제35호(c)에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 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 우리 정부에 현행 형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들불처럼 타오른 #미투를 보며 20대 국회에는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9개의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파행운행으로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지난 3월 30일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안 담당자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7월 9일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들에서 최근 받은 상담 사례 중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 71.4%에 달한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증한 2차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관련 법안 마련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와 입법부에 법 개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를 알려내는 카드 뉴스 제작, 기자회견,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면, 어떤 변화도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은 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에게 피해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여성운동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셀 수 없는 감동의 순간들, 특히 2018년 #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힘을 내게 하는지를 절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변화시키는 법제화 및 우리 사회 성문화를 바꿔 가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강간죄를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적극적 합의’임이 법조문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식이자 일상의 실천이 되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 1월** 1/08 [모두를위한낙태죄폐공동행동] 낙태죄 위헌 결정 축하하는 한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14 [공동]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1/17 단편 영화 <생존자의 자리> 공개
1/24 제28차 정기총회
1/29 [공대위] 기자회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1/29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2월** 2/01 [공대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및 방청연대, 기자회견, 문화제
2/12 [공대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2/13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2/19 [공대위]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2/20 격월간 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 3월** 3/09-22 UN 여성차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참가
3/07 [공대위] 기자회견 <영화감독 김기덕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탄>
3/08 [공동] 기자회견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기 위한 한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일맞이>
3/08 세계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 참가 2019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무대 공연 및 부스 운영
3/15 [공동]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3/21 [공동] 기자회견 <바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3/30 [모두를위한낙태죄폐공동행동] 집회 <카운트 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4월** 4/01 격월간 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METOO 시대의 시민들 '꽃뱀론'을 해제하다>
4/09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4/11 [공동] 한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릴레이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25-27 상근활동가 워크숍
- 5월** 5/09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1회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5/10 [공대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서울함 공원 방문
5/14 의식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교육 시작 <1-6/7>
5/21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시작 <1-7/23>
5/22 [공동]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5/23 격월간 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고소장을 든 페미니스트>
5/24 [미투시민행동] 검찰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점거농성 <검찰이 공범이다>
5/24 2019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뮤직비디오 공개
5/30 서울퀴어문화축제 전야제 서울핑크닷 참가 및 부스 <퀴어하게, 적극적으로 합의> 운영
- 6월** 6/01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참가
6/18 [공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6/19 격월간 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도시사와 군수의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주최>
6/20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2회 <지도받을 권리, 지배받지 않을 권리>
6/28 상반기 평가회의



자기방어훈련 후기

저항과
거절

마미

,

열린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Self-Defense)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에 맞서는 몸-마음 훈련입니다.

열린터 생활인 마미가 자기방어훈련 후기를 전합니다.

피해 상황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그때 왜 바로 도망가지 못했냐는 점이였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흔히 폭력 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주인공은 화려한 발차기나 무술을 선보이며 그 상황을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상 속에 나오는 허구일 뿐, 실제로 일반 피해자들이 저런 무술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예고된 상황이 아닌 갑작스럽게 당하는 상태에선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성을 챙기기 힘들었다. 피해 상황 때도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공격에 무서워 눈을 감고 상대를 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으로 호신술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나에게 오는 폭력이 두려워 몸을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게 되었다.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된다면 날아오는 폭력으로부터 대피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자기방어훈련을 하며



● 스쿨오브무브먼트에서 자기방어훈련을 하는 모습


제일 먼저 배웠다. 일단 상대를 보고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내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상대가 다가오려 하면 다가오지 말라며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계속 강조하셨다.

자기방어훈련에서는 가방을 빼앗으려 하거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선 폭력을 할 경우 또는 머리채 등을 잡혔을 때의 대처법을 단계별로 배워갔다. 정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동작들이 막 어렵다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쉽게 따라 할 수 있었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같이 풀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느낌을 받았다. 각자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싶은지를 말하면 강사님은 방법을 알려주시며 실제 상황처럼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이 정말 가해자가 다가오듯 진지하게 다가와 주셔서 놀란 나머지 가볍게 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임했다. 악력이나 힘의 차이가 선



● 스쿨오브무브먼트에서 자기방어훈련을 하는 모습

명하게 느껴져서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 같았다.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하고 나니 피해 상황 때는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나 후회가 되었다. 아무것도 몰랐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왜 이런 걸 일찍 배우지 못했지, 라는 생각에 한없이 아쉬울 뿐이었다.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젠 누가 칼을 들고 다가와도 무턱대고 당하진 않을 것 같다. 상황의 정도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워낙 그에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탓에 폭력이나 다른 걸 당하더라도 얌전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상대에게 ‘저항’과 ‘거절’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자기방어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젤리의 편지

젤리

9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림터에서 1년 1개월 동안 다사다난한 생활을 보내고

현재 퇴소하여 자립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열림터 전 생활인 젤리라고 합니다!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열림터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많은 생활인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생활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게 될 이 글은 저의 두 번째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립을 막 시작했거나 현재 자립을 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8년 3월 7일에 열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림터에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잦은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했겠지’란 생각으로 버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의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고 주변의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안양에 있는 긴급 피난처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 결국 열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에세이, 시,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는 코너입니다. 모든 이야기와 목소리가 같을 수 없듯이 본 코너의 글들도 각각 고유하고 다양합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편집부에서는 교정·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관점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첫 자립은 열림터에 입소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들어온 열림터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낯선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실질적인 자립에 관해서는 딱히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열림터 생활인들과 선생님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이 정말 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 난 뒤부터 점점 두 번째 자립과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열림터 생활인으로 지낸 지 일 년이 다 되어갔을 때 저는 후련한 감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열림터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좋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그만큼 컸고 불만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두 번째 자립이 얼른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퇴소 날짜가 정해지고 퇴소할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후련함보단 걱정과 두려움,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 나가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혼자 우울해하지 않고 잘 견뎌 낼 수 있을까, 우울이란 감정이 나를 덮쳐올 때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일 중 제일 큰 것은 바로 가족들과 또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나의 두 번째 가족들과 또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었죠. 저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라는 이때까지 큰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의 안 좋은 모습만 보며 자랐고 가족이란 ‘그냥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일 뿐’ 나에게서는 그 어떤 도움도, 큰 의미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림터에 입소하고 난 뒤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과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나 가족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과거의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던 중에도 눈물이 절끔 날만큼 저는 열림터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성인이고 여기 더 있게 된다면 이 생활에 너무 안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의 두 번째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젤리의 방

보여 드리기 부끄럽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새로운 방입니다! 오로지 저를 위한 공간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꾸몄던 것 같아요. 이사온 날 처음으로 빈 집에서 혼자 자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나, 아님 정말 편안해서 그랬나, 처음 이사온 날은 정말 편안하게 푹 잤습니다. 처음엔 통금 시간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 밖에 나가서 새벽까지 놀다 들어오고, 새벽에 늦게 자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모든 게 즐거웠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외로움과 우울이 찾아오면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것만 같고, 일부러 늦게 자야 될 것만 같고 예상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우울해 있는 것보단 이왕 이렇게 된

거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것들을 숨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해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불안했던 감정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물론 상담도 약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잘 다니고 잘 복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젤리는 아주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 먼 미래와 제 삶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등 여러 걱정 말이지요.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저는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열림터와 상담소 선생님들을 비롯해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응원해 주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엔 '가족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잃는 게 아니라 찾아갈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요.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많지만 정말 내가 힘들어할 때면 찾아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힘들거나 우울할 때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찾아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다려 주는 곳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해 주니까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저를 찾아오겠지만 저를 사랑해 주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고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두 번째 자립을 스스로 축하하고 많은 분들의 삶에도 항상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창창한 스물 둘 젤리야, 너의 자립을 축하해! 🍀

'지금'의 가영

가영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말하기 참가자였던 가영님은

현재 대학원에서 예술심리치료를 전공하며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내 안의 나 만나기' 보조진행자로

상담소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생존자로서, 다른 생존자의 치유를 조력하는 과정에 있는

가영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영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대학원 종강 시즌에 맞춰 무척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가끔 낮을 놓기도 하는 중인데요, 일상을 잘 꾸려서 한 절기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심경이 복잡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되어 돌아올 때 저 역시 치유라는 작업은 평생 을 가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준 연대의 공간이기도 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저도 언젠가는 제가 받았던 연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 찾아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 왔어요. 또 언젠가는 좀 더 완성된(?) 모습의 상담사로서 여성들과 만남의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찌어찌 저에게 그 벅찬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주어져, 현재 진행되는 2019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내 안의 나 만나기'의 보조진행자로 생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당시에는 무척 호기롭게 글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작과 마무리가 될 줄 알았건만, '생존'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저를 낮게 놓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기의 타자를 이리저리 눌러보려 했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나는 치유가 잘 이루어진 회복자이고,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치유자로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렇게 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 작업을 시작한 건 아닐까? 내가 '생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두려움이 일었어요.

다만 지금의 '가영'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하자고요. 그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 침착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혹은 나로부터) 절망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나의 생존의 무게를 견디면서 타인을 돌봤던 또 다른 치유자였을 것이고 그건 여성 연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생존자들이 자신의 생존의 무게를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를 감히 '치유자'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여정에 함께한 시작한 이후로 '제가 무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짜잔~!!'같은 건 없었어요. 주 진행자 선생님과 상담소 담당자님의 헌신하는 모습에 감탄하고, 무엇보다 생존자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치유자가 되어주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행복이 또 한 스푼 없어서 저에게도 생존의 연대가 되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주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이곳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앗! 하지만 단언컨대,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까지의 과정 역시 쉽지는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 가해자를 가해자로 인정하는 시간 동안 여성으로 인해 무너졌던 제 경험이 다시 여성들의 연대로 회복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게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입었던 영혼의 상처를 무엇보다 여성들의 연대로 회복했다는 지점이 저의 삶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부족한 저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건지원부터, 저를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 활동가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께 무척 무척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번에는 '지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지원과 지지를 하는' 위치에서 치유자로서 저 역시 용기 있게 한 걸음 밟아보는 시도를 해 볼게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요. 당신들의 생존이 또 다른 생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는 치유자로서 한 걸음을 떼는 저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언젠가 지나 이 연대는 제가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의 '부추김'이 될 거예요.

모두 나대고 부추겨요.
오늘도 일상 안에서 '하루'를 살고, 이것저것 치열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사랑해. 그리고 안녕!) 🙋



●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며 원고를 낭독 중인 가영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

‘나’에게 여행을 선물했어요

제주

‘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 이후 일상을 다시 살아가고

삶을 기획하는 데에는 다양한 욕망이 작용하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의료적, 심리적, 법적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회복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피해생존자가

스스로 지원금의 규모와 지출 계획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삶의 안정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일상회복 프로젝트 참가자 ‘제주’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기획 초기에 저는 안 좋은 기억에 많이 묻혀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이번 프로젝트를 신청하면서 감사했지만 무엇을 해야 기분이 나아질지는 하나도 알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 후 지원금을 받고도 두어달 동안 비슷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5월 중순이 될 즈음 간절하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 제주도 바다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행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행지였던 5월의 제주도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을 꾸짖지 않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본 것이 4년만입니다. 그동안은 일 문제, 돈 문제, 날씨 문제, 계절의 영향으로 발이 묶였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용기를 얻어갑니다.

서울에 있을 때 신경 쓰이던 사람 관계, 그 속에서의 내 모습, 하고 있는 일의 진척도, 성과 등이 잠시 다른 세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는 ‘잘못’이

라든가 ‘나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현재의 저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에 앉아 손으로 물장구를 친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물을 만지고 돌을 골라낸 건 15년 전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날만큼은 온전하게 저로 존재했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되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적인 행위에 중독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뻔뻔하게 사는 그 사람도, 그를 둘러싼 환경도 아니라 바로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행복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최우선으로 아끼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풍경을 저에게 더욱 자주 보여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일상을 굳건하게 다지고자 하는 힘이 마음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길을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느꼈습니다. 제자리에서 용을 쓰고 버티다 몸이 녹아내리기 전에 어디론가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떠난 사람에게는 다시 되돌아올 힘이 생길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부분을 지원받게 되어 어려움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알게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억 그 이후

푸른나비

9

저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8살 이후 10여 년의 어린 시절 기억이 봉인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경력 단절된 한 부모로서.

전직을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에 관련한 기초적인 상담 영역이 나의 무의식을 건드렸는지 밤에는 악몽을 꾸고, 낮에는 펼친 책 위로 남자 성기가 울통불통 튀어 오르는 환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자격증을 딴 것이 너무 아까워, 딱 1년만 경력을 쌓고자 가족경영인 직장에서 정말 1년만 버티다,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부부로 이루어진 그 직장에서 만난 상사들은 가해자였던 제 부모의 성향을 너무 닮았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남자 상사와 으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여자 상사 밑에 있으니 마치 가해자였던 어린 시절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직장동료는 한참 어린 나이인데도 경력 때문인지 본인 인정 때문인지 내게 끝까지 반말을 하고,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런 직장 동료에 대한 느낌은 마치 나의 여동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전, 여동생에게 아빠라는 가해자의 학대에 대해 밝히며, 가해자를 피하면 다음 차례가 동생이 될까 싶어서 널 위해 오래 견뎌노라 어렵게 마음을 털어놓

았습니다. 여동생은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하였고, 제가 태어났을 때 종교 집안인 대가족인 일가는 이미 아빠라는 가해자가 학대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며, 언니가 친딸이 아니라서 가해자의 먹잇감이 된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전하고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직장 구성원과 가해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온몸이 부서질 듯하고 청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직장에서 한 달만 견디면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명과 더불어 물속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에 시달려서 큰 병이 될까 겁이 나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예전에 일이 힘들기로 유명했던 직장을 10여 년 넘게 다닌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흐릿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쉬는 동안 스트레스가 줄어서 소리가 울렸던 귀는 잠잠해졌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은 있어도 마음만큼은 정말 편안합니다. 원래 제 한쪽 귀의 청력이 약한 것은 오래 전 검사했을 때 알았는데, 의사는 어릴 때부터 청력이 안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그 당시 살아있던 여동생에게 전했더니, 자신은 어릴 때 귀아픈 걸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안 좋아졌을 것이고 언니는 엄마에게 맞아서 그리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런 집안이 너무 창피하다 했습니다. 막내 남동생도 엄마가 큰누나를 너무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그땐 그랬나보다 하고 큰 감정 없이 넘겼습니다. 살림을 못 하는 엄마 대신 부모 없는 소녀가장처럼 집안일을 도맡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해자인 부모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다는 것을 옛날부터 인지는 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제 스스로 믿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큰 요동은 치지 않습니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제 얘기를 이해할까요? 겪지 않으면 모를 일일 텐데.... 무시당하고 학대받은 내 인생을 누군가가 저울질할까 두려운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해한 그들에 대한 분노보

다 여전히 어린 시절의 버려진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큼니다

요즘 일을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옛 기억이 자꾸 찾아옵니다. 아빠라는 가해자의 두툼한 손에 발목이 잡혀 바닥에 질질 끌려갈 때, 얼굴에 닿았던 그 차갑고 축축했던 장판의 촉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렀던 고양이들이 엄마라는 가해자 손에 하나둘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원 가족이 길렀던 고양이는 모두 길고양이였습니다. 아빠 가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데 생선을 삶아주니 그 냄새를 못 이겨 한 마리 정도는 마당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밥 달라 애교부리는 길고양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빠 가해자였습니다. 오직 고양이 밥만 챙기고 그로 인한 뒤처리하는 집에 있는 사람 몫입니다. 가해자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걸 못 견디겠다고 짜증내는 엄마. 가해자 말을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양이들은 한 마리씩 있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엄마 가해자가 지나가던 개장수에게 고양이를 보내거나 못 찾아오게 멀리 버스종점까지 가서 내다 버려버리라고 막내 남동생에게 시키거나, 우악스럽게 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쥐고 당장 갖다버리겠다 소리 질렀던 그 장면들이 겹칩니다.

어느 날인가 큰 남동생이 비오는 날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어린 고양이를 구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고양이는 온몸이 접촉제 투성이였고 쓰레기통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부들부들 떨며 울어대는 고양이의 몸에 있던 오물과 접촉제를 조심조심 닦아주고 모두 떼어주었습니다. 그 어린 고양이는 자기를 구해준 것이 너무 좋았던지 개냥이처럼 잘 커서 우리가 무척 애뻐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쥐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왜 필요 없는 쥐약이 놓여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보다 그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고양이가 꼴 보기 싫다고 했던 엄마 가해자 말의 의미에 대해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지? 아빠 가해자에게 학대당하는 나를 엄마 가해자는 어떤 마음으로 본 거지?

근래 중학생 딸을 강간한 의붓아버지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더 주도해서 딸을 죽인 친엄마 사건이 저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합니다. 중학생 소녀는 친부에게도 폭력을 당했고 의붓아버지에게 폭력의 끝인 성폭력을, 친모에게는 살해를 당한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면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라 가해자와 그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뉴스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인 경우는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공개를 안 한다 들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일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 같습니다. 세상에 따지고 바뀌야 하는데 나의 모자란 법 지식과 영향력 없는 사회적 위치로 마음에만 절실히 사무칩니다.

어느새 뉴스는 늘 그렇듯 냄비물처럼 들끓다 그새 사라집니다. 나의 일보다 더 화나는 그 일에 세상의 관심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소 자조모임 '작은 말하기'에서도 말하고, 날 아는 생존자들에게도 말하고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후련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기억이 나면 날 수록 분노는 쌓이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과거의 이야기이고, 시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이 여전히 가해자 위주의 세상입니다. (과연 운 없고 불행한 개인의 삶은 범죄 결과조차도 모두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럴 땐 분노만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고히 하자는 생각에 여태 고민 중에 다짐만 계속 합니다. 제가 정말 생각만, 고민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내 마음 속 깊은 곳엔 너무 두려워서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외면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당한 고통보다, 그 수치보다 더 크게 내 몸이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답해줄까요? ☹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 투고 안내

생존자의 삶과 경험이 담긴 목소리를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형식: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A4 3매 이내 (1회 게재) / 6매 이내 (2회 게재)
보내실 곳: ksvrc@sisters.or.kr
문의: 02-338-2890
기간: 2019년 11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모임 메카 5기

당신의
단톡방은
몇몇한가요?

열쫁

9

2019년 상반기 동안 나눔터 기자단 메카 5기는

'남성성'을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단행본 <그런 남자는 없다>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고,

'단톡방 내 성폭력 문화'를 바꾸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메카 5기 열쫁님이 활동 후기를 전합니다.

“음담패설을 사생활로 변명하지 마세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지 마세요. 성구매 경험과 정보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모임 'MEKA'가 만든 '단톡방 십계명'의 일부 내용이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기본 상식 같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나. 단톡방에서 기본 상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 때문에 잘못된 성 의식이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우리는 십계명을 만들고, 이를 웹 포스터에 담아 배포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제 대응에도 사용할 이모티콘도 제작하기로 했다. 이 글을 쓰는 6월 말, 웹 포스터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고, 이모

티콘은 아직 기획 단계이다. (이모티콘은 제작이 더 복잡하고, 무엇보다 카카오톡 유통 절차와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과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에 성공할 수 있을까? 두둥~)

여성을 굴복시켜야 얻을 수 있는 '남성성'

몇 년 전부터 '단톡방 성폭력'은 핫 이슈였다. 잇을 만하면 한번씩 사건이 터졌다. 이런 사건에서 여성 동료나 동기들의 외모를 폄평하는 것은 그나마 '암전한' 편이었다. 이곳에서 남성들은 어떤 여성과 섹스하고 싶은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자신의 섹스 경험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에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섹스도 상관 없었고 성구매 경험도 상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재미있는 경험으로 유통되는 듯했다. 무슨 '이색 체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혹은 다른 유명인들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어떤 남성들은 일부러 공들여 불법촬영을 했다. 여성이 술을 먹고 정신을 잃도록 유도한 뒤에 마음 놓고 촬영하기도 했다. 다른 멤버들은 적극적으로 파일 공유를 요청했고, 파일을 받으면서 감사를 표했다. 불법촬영물 사진이 터질 때면 이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 신상털이와 파일 검색부터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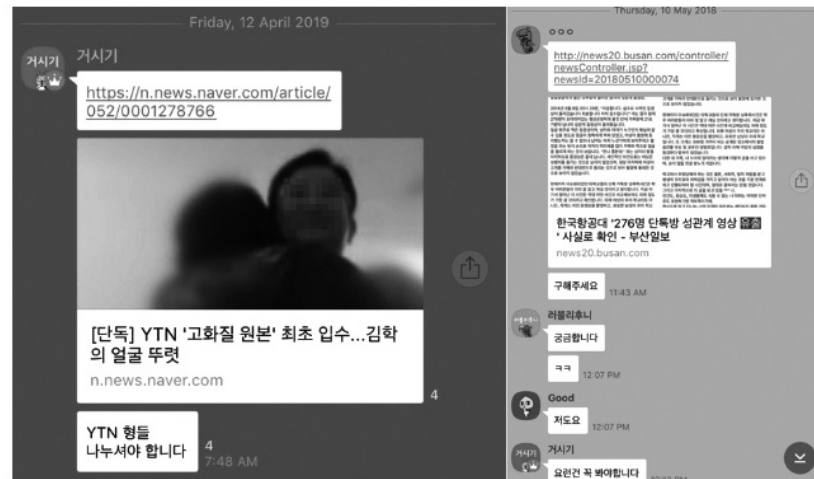
이런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섹스'가 아니었다. 훨씬 원색적인 말이 사용됐다. 이런 단톡방에서 여성은 그저 '따먹는' 대상이었다. 남성이 성욕을 쏜 뒤에 다른 남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래서, 성관계나 사진·영상 촬영 및 배포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물건에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동안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은 주로 지식인이나 유명인 집단의 사례일 뿐이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그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미디어오늘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줌”

기사일력 2019-04-19 19:4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 불법촬영 사건 기사가 뜨면 공유요청이 달렸다. 사진=DSO 제공

가 아는 사실이다. 아마 누구보다 남성들 스스로 더 잘 아는 듯하다. 가해자들은 종종 “왜 우리만 잡냐”,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 항변하곤 했다.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군가는 “친구끼리 편하게 대화도 못 하나. 단톡방 내용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군가는 “불법촬영은 나쁘지만 단순히 파일을 받았다고 비난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단톡방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단톡방은 어떤 남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남성연대 해방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남성연대에서는 여성을 배제하는데, 역설적으로 여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여성은 남성성을 과시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모욕함으로써 동료 남성들로부터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고 남성연대를 강화한다. 남성연대 안에서는 우두머리 수컷이 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섹스 횟수나 빈도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을 더 많이 모욕하고 더 크게 굴복시켜야 한다. 이 룰에 따르지 않으려는 남성은 열등한 ‘보빨리(여성혐오에 동참하지 않는 남성을 비하하는 말)’다.

미투 운동이 불꽃처럼 번져가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가 높아졌지만, 단톡방의 남성들은 끄떡하지 않는다. 남이 한 것은 성폭력이지만 자신이 한 것은 그냥 ‘농담’이고 ‘장난’이고 ‘호기심’이니까. ‘성폭력 가해자’라는 괴물과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굳게 믿으니까. 우리는 이번 캠페인이 단톡방 이슈를 넘어서 잘못된 남성성과 남성연대 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 여성을 성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남성들이 새로운 남성상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 그런 남성들이 많아지길 정말 간절히 고대한다.

그런 남자는 없다. 그런 사생활은 집어치워라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단톡방’을 주제로 정한 것은 아니다. 원래 주제는 ‘남성성’이었다. 남성들은 왜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페미니즘을 공격하는가? 이 문화는 어떻게 확산되고 유지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거의 2달 가까이 <그런 남자는 없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은 꽤 어려웠지만, 우린 끈기있게 (책을 벗어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던졌다. 그리고 긴 논의 끝에 결국 ‘단톡방’으로 주제를 좁혔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정했다. 남겨진 아이디어들은 아쉽지만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다. 물론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다면 가장 좋지만,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지금의 가부장제가 그리 녹록하지 않을 테니까.

이 뿌리 깊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성찰과 더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하다. 다음 MEKA에서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더 멋진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는다. 🙋



0부터 시작하는 단톡방 십계명

0.

음담패설을 사생활로
변명하지 마세요.



5.

차별, 혐오, 폭력에 함께
대응해요.



1.

타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6.

타인의 외모를
품평하지 마세요.



2.

소수자의 정체성은
개그소재가 아니에요.



7.

파트너와의 성생활
떠벌리지 마세요.



3.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깨지 마세요.



8.

성구매 경험과 정보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9.

내가 한 말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바꿔봐요.



4.

성폭력 불법촬영물을 시청, 공유
하지 마세요.



10.

우리 모두는 단톡방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 이미지 다운로드는 홈페이지(sisters.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작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칼럼

나는 ‘여자는 동물과 다름 없다’라는 말이 불편했었다

안백린

,

글쓰는 밀레니얼 사찰음식점 '소식'의 셰프이자

에코페미니스트인 상담소 회원입니다.

동물권, 건강, 환경, 토종 먹거리, 페미니즘을 융합한 사고에서

작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동시에 지향하는 에코페미니스트이며, 우리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동물들을 여성과 연결 지어 강의를 하곤 한다. 호응을 받기도 하지만 이따금 이런 비꼴을 듣게 된다. “어떻게 여성을 동물 취급해요? 여성을 (비 인간) 동물에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혐오가 아닌가요?”

그러한 피드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처음엔 필자 또한 불편했기 때문이다. 첫째, 주체적인 여성들을 ‘죽임 당하여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에 비유하는 것이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혹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상승을 위해 싸우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들은 동물과 같은 처지다’라는 말이 지금도 불만스러운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격하시키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생태주의자인 필자는 그래도 여성과 동물의 비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낀다. 그 말인즉슨, 이 사회 속에서 비인간 동물들의 처지가 여성의 위치보다도 훨씬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인간 동물들의 처지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인간 우월주의, 종차별주의에 기인한다. 인간은 더 똑똑하니까, 동물들은 항상 그렇게 대접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으니까. 불과 백 년 전에 우리 사회는 여성을 두고 같은 생각을 했다. 남성들이 더 우월하니까, 여성들은 항상 하찮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종차별, 성차별 모두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여성과 동물을 연결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친척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시인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차별, 여성 혐오가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물의 감정까지 고려할 수 없어.”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페미니즘은 불평등에 저항하는 정의 운동인가? 아니면 여성의 권리만을 찾는 운동인가?

‘비건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쉬울까?’

페미니스트가 비건이 되는 것이 쉬울까?’

글로벌 동물권 단체, 피타(PETA)는 여성을 상품화한 캠페인을 자주 한다. 험뎃은 여자가 ‘나는 가죽을 입기 보다 벗을래요’라는 캠페인을 하여 이목을 끈다든지, 동물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등, 평상시 동물보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여성의 성을 활용한다고 PETA는 주장한다. 이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노골적인 성차

별주의, 성의 상품화라는 이유로 반발한다. 개인적으로 피타가 하는 활동의 골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 상품화는 ‘괜찮은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동물권 운동이 (여성)인권은 무시하고 동물권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필자 또한 동물과 여성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여성단체를 통해 강의하였을 때 분노하는 코멘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여성을 이용하여, 동물권을 주장하지 마세요.” 물론 그분들은 필자의 강의를 듣지 않고 피타와 같은 동물권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동물권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선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성이 느끼는 차별은 동물에 가해지는 차별과 맞닿아있으며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 둘 다 억압의 구조에 대한 항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性)을 소비하고 있는가?

두 억압의 구조의 연결성은 놀랍게도 여성 축산동물이 많이 착취되는 구조로 강화된다. 고기란 결국 대규모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제 임신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 동물 성폭력의 부산물이며, 우유는 암소를 강제 임신한 후 송아지를 뺏어 가고, 출산한 소에서 잠시 동안 나오는 우유를 짜내는 것이다. 더 이상 우유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임신 시키며 자연조건하에서 1회 분만을 하는 20년 수명의 암소가 7번의 임신을 거치며 보통 4년 만에 단명한다. 그렇게 죽은 암소는 육우로서 팔리며 저렴한 패티로 만들어진다. 계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암탉은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뻥뻥하게 길러지며, 생산성을 위해 밤새 조명을 밝혀 안 재우기도 한다. 자연의 암탉은 수컷과의 교미를 통해 연 12-18개의 달걀을 낳는 동물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암탉은 20개월 동안 200개의 알을 낳다가, 생산성이 낮아진 노계가 되면 죽임을 당한다. 자연조건 하의 닭의 수명은 15~20년으로서, 인간 나이로 치면 영유아 때에 ‘노계’로 불리며 죽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산된 계란과 우유는 곧 여성 동물의 부산물이다. 계란을 낳지 않는 수평아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죽음을 맞이한다. 수소 또한 거세하여 암소처럼 육질이 부드럽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은 비남성인 것이다.

약자를 바라보는 약자

만약에 이런 면이 불편하다면, 또 많은 여성이 고기로 비유되고 있었던 역사를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여성의 차별에 민감한 사람들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저리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스포일러 주의) 영화 속에서는 세 부류의 가족이 등장한다. 지상에 있는 부잣집, 송강호 가족의 반 지하 집,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벌레 같이 기어 올라오는 또 다른 가정의 있다. 영화 속에서 부잣집만 약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 또한 자신보다 더 약자들을 혐오하고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두 약자가 연대하지 못했던 것일까? 페미니스트가 여성차별을 비판한다고 하여 사회의 모든 차별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윤리적 기준 때문에 지쳐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자들이 연대한다면, 비인간 동물들의 처지를 성차별과 별개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고 정의로운 운동이 되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

불편한 후원

선민_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9

지난 4월 '가해자의 감경 목적의 후원' 관련 인터뷰를 했다.*

5월엔 관련 기고문도 하나 썼다.**

나 말고도 여러 명의 활동가들이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했으며

회원 담당자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 기부가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에 문제 의식을 가진 여러 상담소와 함께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불편한 후원'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회원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감경 목적의 후원'으로 처음 인터뷰한 뒤 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전달했을 때의 반응은 "이거 사실이냐", "정말 이런 일이 있느냐", "세상 참 별별 인간들이 다 있네" 였다. 그렇다. 감경 목적의 후원이란 일반 대중들에겐 세상 참 들어보는 별별 일인 것이다.

그런 희안하고도 별별일인 감경 목적의 후원을 걸러내는 작업을 상담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상담소 후원담당 신입 활동가 닷별은 입사 후

편집자 주 * 스브스뉴스, "여성단체에 돈 주면 감경 받을 수 있어.." 기부 못 해 안달 난 대한민국 성범죄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UcBA_27e9Ws, 검색일 2019년 7월 1일) ** 오마이뉴스, "성폭력 재판 받고 계신가요?" 후원자에게 묻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3902, 검색일 2019년 7월 1일)

제일 어려운 업무가 전화 업무라고 털어놓았던 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입활동가로서 다양한 전화 업무를 받아 내는 것 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후원자의 후원이 나쁜 목적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를 매번 확인해야 하니 그 어려움을 해보지 않은 이는 알기 어렵다. 후원 관련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여 모든 희안한 후원을 걸러내는 건 불가능하다.

소위 ‘꼼수 기부·후원’인 감형 목적의 후원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가해를 면피하려는 일방적인 행태이다. 이런 행태는 왜 이리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걸까? 나는 ‘꼼수 기부·후원’을 하는 가해자 개인들도 나쁘지만, 그걸 가능하게 조장하는 법조인과 재판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5년 성폭력 관련 재판 판결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이 감형의 사유로 적시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후원 업무 담당이었던 나는 몹시 당황했었다. 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오용된 것으로 처음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상담소가 발급한 적도 없는 후원 내용이 판결문에 감형의 사유로 적시되었던 것이다.

“ㅅㅇㅅ”이라는 가해자는 2014년 10월경 일방적으로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신청하였고 5개월간 50만 원을 이체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후원 해지 처리를 했다. 당시 담당자인 나는 상담소에 좀 이상한 후원금이 들어오다가 끊겼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한 적이 없으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적도 없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으려고 “ㅅㅇㅅ”의 이름으로 입금되는 10만 원 입금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만 또렷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본인이 상담소에 이체한 내용만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기관이 발급한 공인된 기부금영수증도 아닌 가해자 스스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재판부가 감형의 사유로 참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초에 한 활동가는 대놓고 ‘난 가해자이며 기부하여 감형받으려 하니 기부

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뿐인가, 법원으로 가는 교대역 11번 출구 지하 기둥에는 단정하고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화려하게 웃는 변호사가 ‘아동 성추행, 강간범죄, 기타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감형을 도와드리겠습니다’고 홍보하는 광고판이 붙어있다. 한 시민이 문제제기하여 철거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그런 광고 카피 뿐만 아니라 실제 ‘성공 사례’ 판결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해자들의 감형 팁, 감형 정보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이제 가해자들은 우리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온갖 사회복지 기관에 후원을 하고는 그 내역을 가져다 재판에 감형의 사유로 낸다고 한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2014년의 판결을 내린 판사도, 그리고 가해자 감형을 도와주겠다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도 후원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살면서 후원이란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까? 후원을 무슨 공탁금쯤으로 여기는 것일까? 나는 그저 상식적인 사회였으면 한다. 후원약정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만 응대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후원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2019 상근활동가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주리_부설연구소 올림

,

4월 25일(목)부터 4월 27일(토)까지 2박 3일.

상담소 활동가들은 파주 초호마을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하고 예쁜 마을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깔깔깔 많이 웃고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3일간 활동가들이 쉬고 놀고 먹고 자고 했던 모습을 소개해드릴게요!

‘KSVRC 활동가, 안녕하세요!’

파주에 위치한 초호마을에 도착한 활동가들은 식사를 한 뒤 첫 프로그램 <KSVRC 활동가, 안녕하세요>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소개하고 고민별로 모둠을 구성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고민을 쓰는 종이를 받았을 때 쉽게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얼까, 깊이 생각한 뒤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동가들의 고민의 폭이 다양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을 더 잘하고 싶다!’, ‘활동을 잘하고 싶는데 체력이 부족하다!’와 같이 정석 활동가스러운 고민도 있었고, 앞으로 비혼으로 그리고 활동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노후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 등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한 뒤에는 모둠을 짜서 식당, 카페, 전통찻집 등으로 이야기를 하러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니터만 쳐다보고 일하기 바쁜데 각자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털어놓으며 활동가들의 속내를 더 심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민에 대한 답은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고 한 어떤 활동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요가 혹은 필라테스를 꼭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파주의 초호마을 산책중

모듬 여행: 우르르 마장저수지로!

다음 날 금요일 오전에는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가들은 아침 식사 전후로 근처 목욕탕에 다녀오기도 하고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멍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몇몇 활동가들은 직원으로부터 가족(엄마와 딸들)으로 오해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사회에 정상 가족 서사가 얼마나 공고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이날의 메인프로그램인 <모듬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지로 는 황포돛배, 평화를 품은 집, 평화누리공원, 마장저수지 출렁다리가 제시되었으

● 우리가 건넜던 마장저수지 출렁다리



나... 프로그램을 기획한 오매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간 사이, 활동가들은 옵션을 무시하고! 다같이 우르르 마장저수지 출렁다리에 몰려갔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마장저수지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봤던 풍경도 예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운전자의 스릴 있는(?) 운전은 덤.

출렁다리에 도착해서는, 생각한 것만큼 스릴이 없다며 다리를 마구 흔들면서 건너는 활동가들도 있던 반면, 매우 조심조심 건너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를 아예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여성주의 상담팀 최 모 활동가). 출렁다리를 왕복한 뒤에는 다리 앞에 있던 카페에서 저수지 전망을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은 비바람이 불고 추워서 저수지 근처를 더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이 숙소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지리산, 앞, 유랑, 선민, 닷별은 '평화를 품은 집'에도 다녀왔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은 평화, 인권, 환경 관련 도서를 주로 갖춘 전문 도서관 '평화도서관' 및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등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상담소도 1991년 개소 이후 반성폭력운동 및 인권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축적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상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어떻게 공유할까 계속 고민해오고 있는데요. 평화를 품은 집에서 그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크샵 속 또다른 재미, 게임: 마피아 게임, 활동가 청백전

이번 워크샵에서는 밤마다 게임을 했습니다. 기획된 일정인 것도 있었고, 활동가들의 즉흥적인 제안으로 하게 되기도 하였어요. 첫째 날에는 즉흥적으로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 임하는 활동가들 각각의 전략,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신아, 목련이 준비한 ‘활동가 청백전’을 했습니다. 신입활동가인 수수팀과 닷별팀으로 나뉘어서 몸과 머리를 사용하는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어요. ‘활동가, 몸으로 말해요(말하지 않고 주어진 활동가를 따라해서 맞추는 게임), ‘4도화음(4명에서 음에 맞춰 한 글자씩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 그리고 ‘코끼리코 5바퀴-입으로만 밀가루 속 사탕 찾아 먹기-이불 속 풍선 찾아 불기’ 릴레이 계주를 했는데요. ‘4도화음’ 코너에서는 세시스탑, 이상심장, 공사일삼, 휴가사용 등 출제문제가 너무 어려워 사회자들이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모미는 사회자인 신아와 목련의 릴레이 계주 시범경기였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 다치지 않게 안전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수
안녕하세요.
열린터의 새로운 활동가인 수수입니다.
열린터의 나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으며,
열린터 25주년 포럼도 준비하고 있어요.
수영을 좋아해요.



닷별
안녕하세요.
상담소 사무국 활동가 닷별입니다.
겨울잠을 끝내고 미뤄뒀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터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 활동가 청백전을 앞두고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머리를 쉬고, 손을 쉬고, 서로에 집중하기

활동가들은 사실 외식보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점심도 직접 만들어 먹고 가끔은 손님들에게도 대접해드리기도 해요. 스스로 합정동 최고 맛집(?)임을 자부하는 상담소이지만 이번 워크숍 만큼은! 음식 준비와 뒷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 과감히 매끼 외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시간만큼 많은 일정을 함께 했어요. 저는 입사 후 워크숍이 처음이라서 ‘정말 일을 내팽개치고 와도 되는걸까?’, ‘더 피곤해지지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과 함께한 추억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또 내일을 살아갈 동력을 얻으니까요!



● 2박 3일 워크숍을 끝내고 단체사진 한 컷

마이라의 편지 (Mayra's letter)

글 : 마이라

번역 : 손예진_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9

2018년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에서 상담소 깃발을 보고 찾아와

활동가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던 마이라(Mayra Tenorio)가

어느덧 1년간의 인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동안 상담소의 활동에 애정과 열의를 갖고 참여해주었던

마이라의 활동 후기를 전합니다.

매일 아침, 모든 활동가들은 오전 10시에 시간을 맞춰 모입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며, 일정 담당 팀은 그 전날 스케줄을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점심 준비를 맡을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일과이지만, 10개월 간 인턴으로 일하고 나니,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보여줘서 제가 가장 감탄하게 된 일과입니다.

저는 2년 전 영국에서 젠더학 석사 과정을 밟는 중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수업을 듣고 개인 연구를 하는 것을 즐겨워했지만, 활

동적인 페미니스트 공동체에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종종 수업시간에 배정된 논문 대신, 한국의 미투 관련 뉴스를 읽거나 낙태죄 폐지 시위, 몰카**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그 뉴스와 영상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 참가, 성폭력 관련 데이터 공유, 시위 참여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루스 재단(Luce Foundation)을 통해, 제가 읽었던 “페미니스트 리부트”(Feminist Reboot)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자 서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이슈에 대해 알고 싶었고, 이러한 운동을 움직이고 있었던 페미니스트들에게 젠더 이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런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퍼포먼스, 피켓팅을 같이 했고, 거기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른 여성단체들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다른 소수자 단체와 함께 협력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행사 때마다 상담소만의 안전하고 다양한, 그리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방문객, 기자, 학생 그리고 생존자를 대상으로 여는 행사의 수에 놀랐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 맞게 행사를 기획하는 창의력에서도 활동가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형식에 상관없이 상담소의 미션과 목표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키우는 것’. 저는 활동가들의 헌신과 명확한 비전이야말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웃으며 함께 하고 활동가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많은 이들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활동가들이 페미니즘을 상담소 안에서 서로서로 실천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위계질서는 한국의 회사에서 악명이 높고 한국문화와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데, 상담소 안에서 활동가들은 여러 방식으로 위계질서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제가 활동가들을 대변하거나 이들의 토론을 잘 안다고 할 순 없지만,

편집자 주_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매일 아침 10시에 모든 활동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아침 나눔’이라는 소회의 ** 몰래카메라, 즉 불법촬영물



● 한국여성대회에서 One Billion Rising 공연의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나서서

모든 구성원이 일상 업무를 같이 완수하고, 서로의 행사를 지원하고 모든 팀의 일을 가치 있게 평가하며, 모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저 역시 환대해주었고, 저는 팀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진행되었던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을 도왔습니다. 활동가들은 저를 믿고 안무를 구성하고 참가자들의 연습을 도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동안,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미니스트인,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질문에 부치는 일이다. 어떻게 페미니스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삶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서 살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서울로, 한국성폭력상담소로 이끈 것은 이러한 말들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시도 덕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신념에 너무 안주하지 않고, 제가 실천하는 페미니즘에 계속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젠더 이슈에 대응하여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에게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매일 페미니즘을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에게 배울 수 있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제가 일하는 동안, 상담소에 세 명의 새로운 인턴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10시에 모여 일정을 정리하고 (일정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업데이트 하고 나서, 둥그랗게 모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온 인턴 중 몇몇은 긴장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붉어진 얼굴을 보니, 제가 처음 왔을 당시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긴장되어 보였는지 떠올랐습니다. 비록 아직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속상하지만, 저는 그 당시 저를 소개하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낯선 이들과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가고 존경하게 될 여성들과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상담소와 함께 하는 시간이 곧 끝이 나지만, 저는 제가 언제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또 저에게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원문은 상담소 블로그(stoprape.or.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마라톤대회에서 지희, 아낀, 유랑, 마이라, 닷별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강민경, 고야모, 고자은, 권영진, 권효중, 기독교외무ью센터, 김광현, 김금진, 김길우, 김나경, 김나연, 김다혜, 김다희, 김다희, 김로사, 김명민, 김문주, 김민성, 김성현, 김수희, 김승현, 김여진(여파), 김연경, 김영미, 김유경, 김윤경, 김지찬, 김형수, 김혜인, 나은찬, 남상욱, 남윤영, 남효정, 노태형, 문은혜, 박명화, 박민지, 박민지, 박상영, 박세진, 박유림, 박윤성, 박지원, 박지호, 배설했, 백승현, 백윤서, 백지연, 사월, 선재희, 성기진, 소연정, 소희성, 손미선, 송승찬, 송호영, 양동현, 오성화, 오승미, 우윤지, 유다솜, 유선영, 유필잎, 윤다정, 윤소진, 윤수진, 윤용호, 이도엽, 이명현, 이산, 이상미, 이상민, 이서희, 이성은, 이세영, 이슬아, 이승훈, 이여경, 이영미, 이우연, 이정민, 이정은, 이종희, 이준도, 이진용, 이채영, 이현주, 이현주, 이효린, 장수진, 장지숙, 장현희, 전두리, 정경직, 정두리, 정승우, 정예애, 정지원, 정지혜, 정혜호, 조문형, 조혜연, 조혜민, 최보름, 한보라, 한소망, 한신복, 허지민, 홍주은, 황성욱, 김윤영, 장주희, 조원규, 차소영, Dalia Kirzner (이상 114명)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우)제이스트리, aaami, Dalia Kirzner, 가이안산, 강가람강가에, 강경인, 강광내, 강길보, 강남식, 강동희, 강동록,
 강버들, 강보길, 강신오,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정희, 강정희,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민지, 고보경,
 고봉설, 고성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광경화, 광우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희, 구현지, 권경아, 권구홍,
 권강현영, 권서현, 권선경, 권소영, 권인선, 권인숙, 권경,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진, 금철영, 김은정, 김가현, 김경선,
 김경아, 김경주,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규원, 김가혜, 김나연, 김나영, 김나주, 김나형, 김다미, 김다현, 김도린, 김도홍,
 김도희, 김동명,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도사, 김명민, 김문영,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선, 김미진, 김미하,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지, 김민구, 김민순, 김민아, 김민우, 김민정, 김민정,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태, 김민환, 김보영, 김보연, 김보하, 김상미, 김상정, 김사래, 김새빛, 김사화, 김사석,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화, 김성동, 김성문, 김성옥, 김성자, 김성훈, 김성희, 김소라, 김소희,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민, 김수잔, 김수진, 김순원, 김순자, 김슬아, 김승재, 김시연, 김신아, 김애라, 김애란, 김애림, 김양지, 김양희,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나, 김영미,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용란, 김용선,
 김용식, 김우연, 김원경, 김원식, 김유나, 김유림, 김윤경, 김윤영,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원, 김재원, 김경민, 김경아, 김경완, 김정은, 김경혜, 김종수(관상범)/
 리지모드, 김종용, 김종희, 김주연, 김주영, 김주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연, 김지윤,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채원, 김채주, 김춘화, 김탁환, 김택원, 김하나,
 김하나,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정, 김혜정(오매), 김혜진, 김화숙, 김효선,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성은, 나윤정, 나인선, 나재은, 남민영, 남병희, 남상옥, 남순아, 남승현, 남우희, 남윤아, 남인순, 남정현,
 남지민,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규미, 노미선, 노선아, 노우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태형, 노희설,
 노희지, 더트리그룹(주), 도병옥, 도상금, 류란, 류승걸, 류효윤, 마정운,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성훈, 문수연,
 문윤경, 문은혜,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사라, 민원기, 민정원, 박경숙, 박경훈,
 박기민, 박기순, 박다유, 박덕인, 박명선,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주,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희,
 박서원,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준, 박성훈,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림,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진, 박숙미, 박아름, 박아름, 박아린(Park Aileen), 박영수, 박영주, 박용순,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진, 박은혜(이준가), 박인기, 박재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연, 박진표, 박창경, 박천우, 박충은,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혜찬, 박희정, 박기연, 박한재, 배경, 배셋별, 배성진, 배소희, 배우미, 배은경, 배지하, 배재원, 박경원, 박경호,
 백민수, 백서영, 백석길, 백설희, 백승현, 백인애, 백지선, 백현, 법무사 김창호사무소, 변순인, 사월, 서경원, 서희숙,
 서미현, 서민자, 서보일, 서순진, 서연희, 서용란, 서유진, 서윤정, 서인석, 서정애, 서정수, 서지은, 서태자, 서현지, 서희숙,
 선재희, 선희갑, 설려자, 성예랑, 소연정, 소은정, 송경이, 송다혜, 송명근, 송미연, 송연성, 송우성, 송준성, 송민영, 송석진,

송승훈, 송원규, 송유진, 송영연, 신동현, 신명숙, 신미라, 신상일, 신상호, 신성용,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선,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나, 신한술, 신현, 신현주, 신희원, 심성보, 심승주, 심조원,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본순, 안윤정, 안재훈, 안지희, 안창화,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형운, 양경아, 양민희, 양선화, 양성옥, 양성은, 양수애나, 양은주, 양정은, 양지유,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여진희, 엄수현, 엄현경, 여주하, 여지윤, 여진아, 오경은, 오경희, 오네기하우스, 오선곤, 오성화, 오성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민, 오승이, 오영일,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창민,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유경민, 유경희, 유보람, 유성혜, 유세경, 유숙주, 유승진, 유예리, 유인규,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필요, 유현미, 유형하, 유호정, 윤나래, 윤범석, 윤소정, 윤수련,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연, 윤희연, 윤희영, 음선화, 이강화, 이건국, 이건경, 이경미, 이경민,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계형, 이규호,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난주, 이남주, 이다정, 이도규, 이동원, 이동현, 이로운, 이명숙, 이명신, 이문주, 이미경, 이미화,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미, 이상용, 이상재, 이세록, 이서영, 이선영, 이선혜, 이성은, 이세린, 이소련,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소희, 이수만, 이수열,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하,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승관, 이승관, 이승준, 이승철, 이승훈, 이애린, 이연정, 이연표, 이영근, 이영기,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원택, 이윤희, 이원형, 이원홍, 이우미, 이윤희,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은,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장우, 이재순, 이재원, 이재원, 이재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종연, 이종희, 이준비,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진아, 이태숙, 이태호, 이하영, 이한,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숙, 이현주,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희동, 이희수, 이희화, 임근호, 임경일, 임금희, 임서영, 임설아, 임순영, 임여경, 임유영, 임유정,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천용, 임형숙, 임효진, 임홍실, 임희운, 장광미,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성희, 장수경,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주, 장재운, 장정은, 장정희, 장주리, 장주희, 장지숙, 장진, 장진영, 장철우, 장혜란, 장효정, 전누리,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소연, 전승화, 전아담,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유나,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기영, 정다솔,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영, 정민성, 정민수, 정민이, 정보배, 정복련, 정소린, 정슬아, 정영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영애, 정예슬, 정예지, 정옥실, 정원연,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은아, 정인호, 정정기, 정종민, 정준애,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옥, 정진주, 정진화, 정현, 정혜윤, 제갈향선, 조경림,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로, 조무호, 조민우, 조서연, 조신주, 조소연, 조순영, 조영선, 조윤경,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 조일배, 조재연, 조정민, 조지혜, 조진희, 조향연, 조현규, 조혜인, 조훈재, 주광용, 주병희, 주희진,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인순, 진새록, 차상안, 차소영,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아, 천정환, 최경식, 최근우, 최기성, 최대연, 최동석, 최란, 최미숙, 최보미, 최보원, 최선아, 최성호, 최성화, 최수림,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미란, 최현정, 최영애, 최영주, 최영철, 최옥경, 최왕열, 최용두, 최원일,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정은, 최지나, 최지나, 최진경, 최진아, 최효선, 최희범, 주민주, 주정희, 주지현, 탁수정, 하다영, 하를, 하은주, 하유림, 하은주, 하종석, 하수진, 하주연, 하기보, 한보현, 한미화, 한보경, 한수연, 한승진, 한승희, 한선희, 한현미, 한혜슬, 한정림, 한 재운, 한희정, 허라규, 허선형, 허기보,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혜, 현정순, 홍민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세기, 홍순기, 홍아연, 홍유진, 홍윤희, 홍은정, 홍일선, 홍진경, 홍찬숙, 홍혜선, 황미선, 황승수, 황성기, 황성민, 황소영(이한), 황숙희, 황예나, 황재호,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이상 930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덕, 강장자, 강지연, 강진자, 강경모, 김경현, 김미주, 김민정, 김정희, 김지은, 김희정(하이드), 김효진, 나인선, 남우석, 노경윤, 노주희, 박미란, 박부진, 박성선, 박용숙,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순희, 배정철, 송미현, 신상호,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희, 이경찬, 이덕희, 이명숙, 이문희, 이미경, 이상화, 이영희, 이유미, 이유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미화, 임순영, 임초록, 임효진, 장윤정, 장철우, 정대련, 정명봉, 정순희, 조인성, 조일재, 천수진, 최보민, 최수진, 최예진, 하동호, 허정, 홍순기 (이성 64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재득, 강지이, 고화정, 객선하, 금보경, 김경태, 김도홍, 김도희, 김미향, 김민승, 김선경, 김선환, 김성준, 김소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정,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연정, 김영지, 김원오, 김유숙, 김유정, 김윤혜, 김차연, 김태연, 김혜연,



김혜진, 김효진,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하연, 노희지, 류종현, 문숙영, 미씨유럽, 민슬기, 박계나, 박미정, 박상희, 박성형, 박아름, 박은경, 박인필,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배정원, 백미순, 백용민, 서범원, 서혜인, 소름타미스트 서초클럽, 송미현, 송민성, 신경혜, 심장현, 심진섭, 심현실, 안분순, 안재희, 안효선, 양미초, 양윤희, 양주애, 엄다희,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유미란, 유선옥, 유예리, 유진영, 유해숙, 이경선, 이계형,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연, 이성아, 이수정, 이신율, 이어진, 이예담, 이옥영, 이윤희, 이은정, 이재현, 이정숙, 이정화, 이종국, 이주란, 이주섭, 이진향, 이찬희, 이태복, 이향섭, 이향화, 이형찬, 임명순, 임유영, 임치선, 임치순, 장다혜, 장명환, 장희진, 전순유, 전승기, 전혜영, 정민석, 정선희, 정은희, 정재철, 정정희, 정창수, 정현주, 조경진, 조민정,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중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수희, 채송희, 최가람, 최강현, 최세은, 최윤미, 최정림, 최정임, 최정희, 표아림, 하동호,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야마자카마작(주), 한영규, 한전부녀회, 한정은, 한진희, 허복옥, 허정연, 허제량, 홍남영, 홍윤기, 황동하, 황유나, 황은순 (이상 159명)

▶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아모레퍼시픽, 강지원, 고윤경, 권진영, 김덕임, 김록수, 김보준, 김선경, 김소연, 김수정, 김미우, 김종민, 김태환, 나윤경, 남수경, 남우희, 남진애, 박보급, 박서원, 박선민, 박성열, 박승호, 박시은, 박신정, 박용민, 박인필, 박종욱, 박지원, 반지판다, 손경화, 손세라, 손용혜, 송호영, 수상한 메신저 RFA, '슬릭의-지지' 진부책방 합참공연, 신소연, 신은영, 안예은, 안희정우최축하, 양현경, 원미진, 유재현, 유한회사미디어일다, 이수영, 이윤상, 이재웅, 이종혁 포토키프라, 이준도, 임도희, 임미리, 장광미, 정정윤, 정대련, 정수라, 정재후, 조유정, 조일래, 조혜인, 한빛비즈,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서포터즈 소중한데, 한양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보통의경현, 한정림, 한희연, SN (이상 65명)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씬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 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 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닥벨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씬터 열림터 회원 문의: 백목련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안영옥님의 속초 특제 만석닭강정 3박스
주리 아버지의 성수동굴파배기 대표상품 바삭 촉촉 파배기, 핫도그, 도너츠
장광미님의 미세먼지 타파를 위한 배도라지즙 2박스
김현주님의 당 충전 크리스피 도넛 3박스
정경자님의 끈끈한 찹떡 60개와 시원한 식혜 10병
이경환님의 꽃잠 1상자
박조하님의 달콤한 배와 사과 1박스
정은님의 비타민 가득 과일 4바구니와 딸기설기, 초코설기
캐시님의 3.8 기념 사랑스러운 꽃다발과 비타민 뽕뽕 오렌지 주스 2L 2병
김성자님의 싱싱한 통영 굴 1박스
양정자·일본 방문단 분들의 맛있는 일본과자
해달님의 낙태죄 폐지 기념 한라봉
정유석님의 맛있는 강원도 찐지 2통
이명숙님의 건강만점 토마토 2박스
유네 어머니의 정갈하고 고급진 강화도 강정 1박스
조인섭님의 향 깊은 와인 17병
임경진님의 원기회복 무농약 포도즙 1박스
장정윤님의 달콤한 한라봉 10kg
한들님의 고소한 녹차, 얼그레이 쿠키
연세대 간호학과 분들의 무화과 생크림 빵
마이라님의 베트남 초콜릿 3박스와 과자 2봉지
박상훈님의 달콤한 애플망고 1박스
유유님의 스승의 날 기념 롤케이크 2롤
봉봉님의 지친 마음 달래주는 츄러스
나랑님의 고소하고 끈끈한 제주 오메기떡
이동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오뚜기 선물세트
최영애님의 고급스럽고 맛있는 도시락 12개
임수영님의 비타민 충전 레드향 1박스
손예진님의 입에서 사르르 녹는 벌꿀, 녹차 카스테라
노주희님의 건강 가득 사과즙 1박스
비현님의 자꾸 생각나는 달콤한 바나나 롤케이크와 향이 일품인 커피원두
상담소에 방문해주신 내담자 분의 깔끔한 녹차 카스테라
<카피플러스>에서 활동가 비타민 보충을 위한 달콤한 굴 5kg 2박스
<여성영상집단 움> 이해란님의 톡 쏘는 삼페인과 달달한 트러플 초콜릿
<서울시향> 분들의 프렌치 구운과자 2박스
<릿코대학교> 이미숙님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병아리 화과자 1박스
<마인드프리즈>에서 쿠키와 카스테라 2박스
<수유너머> 권용선님의 맛있는 파운드케이크 1박스

{ 열림터 }

신의경님의 제철 맛은 새콤달콤 한라봉 10kg
미씨유럽 옥혜숙님의 명절맛이 비타민 충전 한라봉 3kg 4박스
주혜명님의 피부건강을 책임져 줄 천연화장품 13세트
명종님의 당장 웃이 필요할 때 유용한 중고기류 1박스, 입이 심심할 때 좋은 도넛 1박스
서범원님의 일용할 양식 참치캔 600개
조화 전 활동가님의 장건강을 도모하는 유산균 1박스
암스테르담의 건강한 재료로 만든 건강빵 두 바구니
주식회사 인스팅터스의 쾌적한 월경생활을 위한 피팬터 100벌
이케이코리아의 열림터 거실을 카페처럼 바꿨던 가구 일체

유 한국성폭력상담소